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4년 4월호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NEWS LETTER April 2024**

교내소식

신임 부총장(국제협력) 이경식 교수 취임 인사



부족한 사람이 CST의 부총장(국제협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학교는 정년퇴직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육과 CST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를 고려할 때에 이제는 좀 더 젊은 세대가 학교를 주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하게 되어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은퇴 계획을 Dreitcer 학장에게 2023년 말에 전달했습니다. 2025년 봄학기가 제 마지막 학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어 있는

중, Grant Hagiya 총장과 Andy Dreitcer 학장이 2024년 2월 중순 저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로 부총장(국제협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주 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은퇴 후, 제 고향 호놀룰루로 이사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제 은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CST를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CST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저 자신과 다짐하며 부총장직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CST에서 교수 생활을 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CST에 부임하기 전, 동부에 있는 두 신학대학원에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CST에 와서 독특하게 느끼고 경험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CST는 다른 신학교와 비교하여 뛰어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학장(국제협력)으로서 제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는 CST의 뛰어난 단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제 직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한국 파트너들과의 관계 개선:** 지난 몇 년간 CST가 당면했던 많은 과제들은 큰 도전이었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CST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다시 한국 방문을 할 것이며 신학대학교 방문과 함께 한국의 CST 동문과의 만남을 재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 상호협력과 지지를 위한 방안을 기획할 것입니다.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Grant Hagiya 총장, 김남중 교수와 동행할 것입니다.
- **전문상담박사학 과정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한국 및 한인 대상의 학위 과정입니다. 서울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과정이며 최종 인가 허가를 3월 셋째 주에 받았습니다. 2024년 7월부터 강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LA에서 집중 강의 두 번, 나머지 강의와 임상훈련은 한국에서 제공합니다. 제가 이 과정의 디렉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한국 유학생과 한인 학생 지원:** 적극적인 장학금 지원과 LA에서의 효과적 적응 및 학업과 사역을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파트너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LA에 소재한 여러 교회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장학금과 학교 지원 모금:** 많은 분의 희생으로 모여진 한인 학생들을 위한 영구 장학금이 현재 이백만 불 정도이며 한인리더십 장학금이 40만 불 정도입니다. 이백만 불의 4%를 매년 장학금으로 수여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영구 장학금과 한인리더십 장학금을 증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CST 한국 파트너, 학생, 동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학생들의 유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동문의 공헌을 학교에 더 많이 알릴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김남중 교수와 함께) 학교의 뉴스에 여러 기사를 벌써 실었습니다.

이 외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지면에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일들이 많고 훌륭해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갑자기 제 역할이 변화하면서 제 기도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만 CST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CST가 여러분의 교회, 학교, 단체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신학 교육을 감당하는 CST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경식 부총장(국제협력)
Edna & Lowell Craig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Spiritual Care, & Counseling

교내소식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학생들, 함께 모여 식사의 자리를 가지다



지난 3월 17일 주일 오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하 CST) 한인 학생회의 주최로 정기 모임을 가졌다. 한인 학생회 지도 교수인 이경식 교수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학업과 사역으로 지쳤을 한인 학생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최근 CST가 LA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한인 학생들이 LA 부근으로 이사했다. 그래서 이번 한인 학생 모임은 처음으로 LA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경식 교수 부부와 한인 학생회장 임요한 전도사를 포함하여 17명의 CST 한인 학생 및 가족들이 이날 모임에 참석했다. 더욱이, 김지훈 목사(동양선교교회 담임, Ph.D 과정)는 한인학생 모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해주며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함께 웃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학생들은 CST 한인 학생으로서 유대감을 느끼며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임요한 전도사는 “이러한 식사 모임을 통해 한인 학생들이 서로 친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며, 비록 서로 바쁘게 지내지만 이러한 만남의 기회를 통해 CST 한인 학생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용기와 위안이 되었다. 이러한 모임을 주최해 주신 이경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학교가 이전하면서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 여건이 많이 달라졌지만, 한인 학생들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CST에서 학업의 여정을 기쁨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내소식

CST의 온라인 수업, 신학교육의 모델로 발전



(▲학생들이 수업 후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빠르게 변화하는 신학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이하 CST), 혁신적이고 뛰어난 온라인 수업환경을 조성해오며 새로운 신학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로 캠퍼스를 옮기면서, CST는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웨스트우드 캠퍼스가 디지털/온라인 시대에 맞게 더욱 향상된 수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믿고 있다.

우선, CST의 온라인 수업의 큰 장점들 중 하나는, 방대한 양의 학술자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다. CST는 120만 권의 학술 자료와 서적을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CST의 학생들은 학교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도서관에 접속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학술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CST는 Dr. Marvin Sweeney, Dr. Frank Rogers와 같은 저명한 교수진들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CST가 추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며 동시에 학문적 깊이가 있는 젊고 재능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여 온라인 수업환경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CST 교수진의 전문성과 열정은 각 온라인 수업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화형 강의, 참여형 토론, 그리고 매주간 배운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제 등의 온라인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좀 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질문과 생각을 하며 자기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

교외소식

미국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LA연합감리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감사 및 임직 예배를 드려…



(▲LA 연합감리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임직식을 가졌다)

지난 3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LA연합감리교회는 창립 12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임직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에는 LA연합감리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도 참석하여 LA연합감리교회의 120년간의 역사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축복했다.

예배를 인도한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담임)는 2015년 LA 연합감리교회로 파송 받아 지난 수년 동안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이 목사는 지난 120년간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LA 연합감리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되새기며, LA연합감리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별히, 이번 예배는 연합감리교회의 한인 목회 강화협의회 회장인 정희수 감독의 참석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정희수 감독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전하며, LA연합감리교회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란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계속해서, 한미 사역 강화협의회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와 복음연합감리교회 캘리포니아 태평양연회의 한인 코커스 회장 김호용 목사의 진심 어린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LA연합감리교회의 지난 120년간의 헌신을 상징하듯,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명을 결단하는 제직 취임식이 열렸다. 오경환 목사(시온 연합감리교회 담임)의 인도로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된 26명의 성도는 새로운 직분을 맡은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이며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기로 다짐했다.

이번 120주년 예배에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이경식 교수가 참여하여 봉헌기도를 맡았다. 사실, LA연합감리교회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인연이 깊다. LA연합감리교회는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백만 불 이상을 모금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1979년부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해오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 동역자로서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본 예배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대학발전위원회를 담당했던 김웅민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김웅민 목사는 지난 120년 동안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표하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진심 어린 축도를 전했다. 그는 1978년 LA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기에 그의 축도는 성도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LA연합감리교회 120년 간의 역사는 신앙 안에서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을 수 있다는 이정표로서 우리에게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LA 연합감리교회가 여정의 다음 장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등불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주)

2024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준

꽃재 교회 (김성복 담임목사)

갈릴리 감리교회 (김영복 담임목사)

황인조 장로

강신욱 목사

이현재 전도사

LA 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서태원 재단 (서동영 장로)

고계홍 장로

김웅민 목사

이상호 목사, 이진순 사모 (벤나이스 연합 감리교회)

박성숙 사모

강승학 장로 (정동 제일 감리교회)

오경환 목사 (시온 연합감리교회)

김영진 목사 (Trinity UMC & La Palma UMC)

임용빈 장로

나성금란교회 (이석부 담임목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한의준 담임목사)

이신자 권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담임목사)

한상훈 회장

이삼휘 권사

이경식 부총장

총액

\$ 166,268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kef@cst.edu
www.cst.edu
www.facebook.com/claremontschooloftheology